

식량위기 지원분야 KOICA 사업 추진방안

김 영 란 / 한국국제협력단 기획예산팀 과장

I. 서문

최근 국제곡물가의 급등 등으로 인해 세계 식량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식량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곡물가의 급등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을 포함, 세계 전역으로 번지고 있어 단순한 식량위기의 문제가 아닌 “식량안보”라는 용어까지 대두될 정도로 심각하다.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 WFP) 조셉 시란 사무총장은 현 식량위기가 식량수입국, 개도국, 저소득계층, 취약계층에 쓰나미의 파고와 같은 재난을 준다는 점에서 “조용한 쓰나미(a silent tsunami)”라고 비유하기도 하였다.

향후 식량위기가 얼마나 더 계속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인 견해보다는 비관적 견해가 더 강하다. 이는 현재 식량위기가 기상이변과 같은 자연 환경적 원인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현행 자유무역주의 체계

의 불가피성, 선진국들의 식량을 이용한 바이오연료 사용 정책, 달러 약세 등 국제거시경제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향후 곡물가격변동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입의 2/3를 식량에 소모하는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 10억 명의 빈곤인구에게 현 식량문제는 생존 및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최우선 개발과제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 식량위기 현황과 식량위기 유발원인을 살펴보고,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사회 지원동향과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현황을 점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개도국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추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식량위기 현황과 원인

1. 식량위기 현황

2008년 3월 곡물가격지수는 2006년 1월과 대비하여 278% 상승하였다. 옥수수는 최근 2년간 가격이 3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밀과 콩도 각각 80%, 100% 상승하였다¹⁾. 곡물가 급등으로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개도국 내 기아인구가 현재 8.5억 명에서 1억 명이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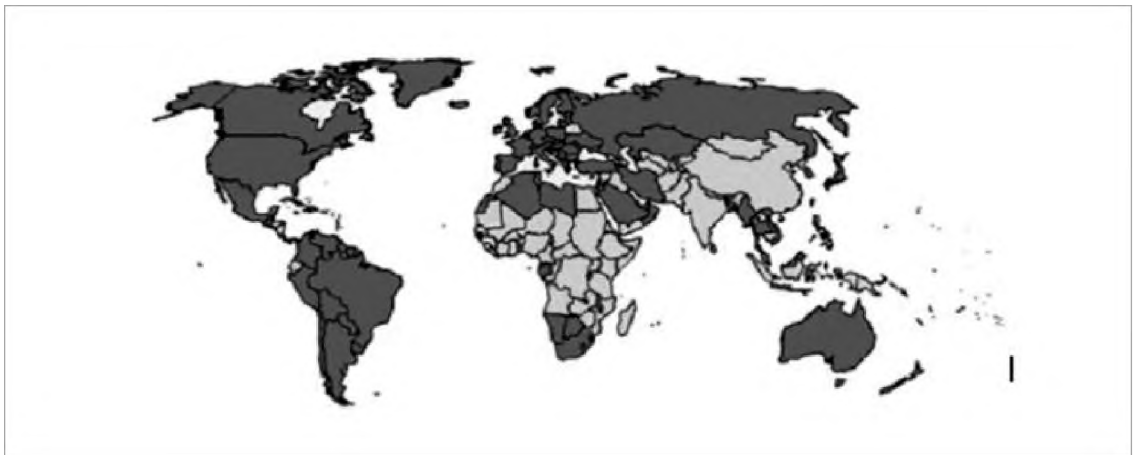
전 세계 곡물 재고가 1980년대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지자 주요 곡물생산국가²⁾에서 수출세를 부과하는 등 수출제한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러시아는 작년 11월부터 보리, 밀에 각각 30%, 10% 수출세를 부과했고 우크라이나도 밀, 옥수수, 콩 등에 수출세를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중국도 쌀·옥수수·밀가루 등에 대해 잠정적으로 5~2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자국의 식량가격안정을 위

해 곡물 수출을 제한하는 등 “식량 민족주의”가 대두되면서 식량수입국의 식량위기 상황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농산물 생산 원가와 운송비의 상승도 식량위기를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올해 아이티에서는 진흙으로 쿠키를 만들어 주린 배를 채우던 주민들이 그마저 공급받지 못하자 이를 해소하라며 폭동을 일으킨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사태로 평화유지군 소속 군인 중 7명이 사망하고 총리가 사퇴하게 되었다.

UN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or the United Nations: FAO)에 따르면 세계 37개 국가가 식량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최근 2년간 파

〈그림 1〉 식량부족국가지도



※ 연한색 : 식량부족국 (Low Income Food Deficit Country: LIFDC)

1)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2008.

2) 주요 곡물생산국 : 미국, 중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러시아 등.

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와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모리타니아 등 아프리카 20개국에서 식량배급 및 관리과정에서 대규모 폭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2. 식량위기 유발 수요측면 원인

세계 곡물가격의 급등은 최근의 바이오연료 수요증가로 촉발되었지만 인구증가, 중국·인도 등 거대인구국가의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축산물 수요 증가, 곡물가 상승 기대에 따른 국제금융자본의 투기적 수요 등의 수요측면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 인구증가

2005년 기준 65억 명의 세계 인구는 2020년에는 77억 명으로, 2050년에는 약 92억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선진국 인구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개도국 인구는 평균 1.5배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아프리카가 인구 증가율이 2.2배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³⁾.

나. 신흥 경제강국의 축산물 수요증가

또한, 중국과 인도와 같은 거대 인구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따른 축산물 수요 증가도 향후 곡물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향후에도

2016년까지 연평균 6.5%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지난 5년간 연 7%, 향후 2016년까지 연평균 5% 이상의 경제성장이 기대된다.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고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축산소비가 증가함으로써 결국은 곡물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쇠고기와 돼지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료작물이 각각 8Kg, 4Kg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 대체에너지인 바이오연료의 개발 및 수요증가 추세

전술한 바와 같이, 2006년 이후 세계 곡물가격 급등을 촉발시킨 요인은 바이오연료용 곡물수요 증가이다. 곡물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대표적인 바이오연료로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이 있다. 현재 전 세계 바이오에탄올 생산량은 약 400리터이고 이중 브라질과 미국이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미국 부시정부는 2005년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고 2012년에 휘발유 소비량중 약 280억 리터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전체 옥수수 생산량의 56%를 사료용, 각 20%는 에탄올 생산용과 수출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브라질은 바이오연료의 세계 최고 강국으로서 2005년 승용차 연료의 40%, 자동차 연료의 15%를 바이오에탄올로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2016년에는 생산량이 약 440리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바이오연료는

3)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6 Revision」.

4) 에탄올 100리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옥수수 분량은 240Kg.

전체 운송에너지의 1%를 차지하고 있지만 2020년에는 전체 운송에너지의 5~6%를 차지할 전망이며 중국, EU, 캐나다 등도 정책적으로 바이오연료 생산을 확대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곡물수요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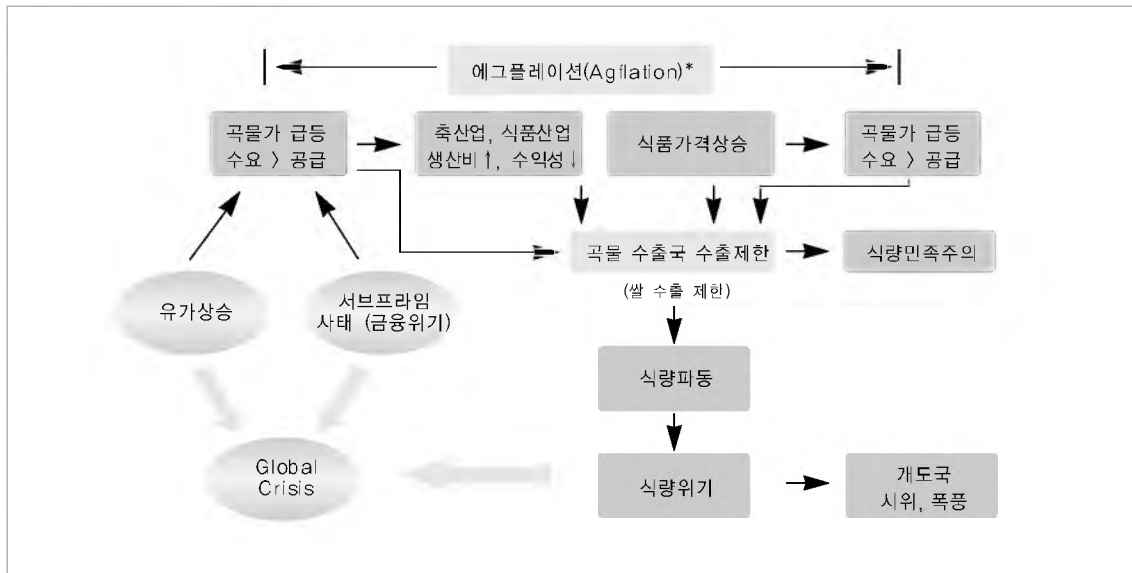
최근 유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원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곡물을 바이오 연료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세계 식량위기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이 높다. 「잡식동물의 딜레마」의 저자인 마이클 폴란은 “세계 식량위기는 부시 행정부가 2006년 내린 결정의 직접적인 결과라며”, “농경지를 사람이 먹는데 사용해야지 자동차나 소들을 먹이는데 사용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라. 세계 거시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마지막으로 세계 거시경제 변화를 들 수 있다. 2002년과 2006년 사이 유가가 160% 상승한 이후 2008년 초에는 1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유가가 급등하였다. 또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 달러의 약세가 지속되면서 달러화 자산들이 원자재와 곡물과 같은 상품시장에 유입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와 같은 달러 약세, 유가 인상과 같은 거시경제변수 변화에 따라 국제곡물시장에 투기자본들이 몰려든 것이 세계 곡물가 상승의 61% 비중을 차지한다고 분석하였다.

3. 식량위기 유발 공급측면 원인

〈표 1〉 식량위기와 세계위기 현황⁵⁾



5) Agflation : 농산물가격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

21세기말까지 지구 평균기온이 2.4℃ 내지 6.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기후 온난화로 인해 80년대에는 연 1,200회 정도 발생했던 자연재해가 최근에는 연간 400~500회 증가하였고 향후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에도 미얀마 사이클론, 중국 쓰촨성 지진, 아이오와의 홍수 등의 기상재해로 농산물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외에도 유가 급등 및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 선박해상 운임이 상승하고 농업생산비가 증가하는 것도 곡물 가격 상승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단기적 현상이지만, 세계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 곡물 가격을 20% 이상 상승시킨 요인으로서 수출국의 곡물 수출제한을 들 수 있다. 세계 주요 곡물수출국들이 자국의 식량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수출세를 인상하거나 수출할당제 등을 도입하여 수출을 제한하면서 식량민족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러시아, 중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키스탄 등의 국가들이 자국 물가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해 수출물량을 제한하고 국내비축량을 늘림에 따라 곡물수입국들은 안정적인 식량물량 확보를 위해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국제사회 대응 동향

현 식량위기의 가장 큰 특징은 식품 자체가 부족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곡물을 주축으로 한 식품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때문에 사먹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

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식량계획(WFP)의 조셋 시란 사무총장은 “인류가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전통적 기아가 아니라 돈이 있어도 사먹지 못하는 새로운 기아를 경험하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식량위기는 지구촌 공공재 제공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을 넘어선 여러 국가들의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UN을 중심으로 식량위기 대처를 위해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단기 및 중·장기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OECD/DAC 고위급회담(파리, '08.5.20~21)에서도 미국, 벨기에, 세계은행, UN 등은 식량가격 급등 문제와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식량위기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농업연구 투자확대, 농작물에 대한 바이오기술 사용 인정 등을 통해 식량생산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점 등이 논의되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지난 5월 세계 식량문제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특별 TF 회동에서 “식량위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전 세계적으로 무역 발전 심지어 사회 및 정치적 안정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위기로 급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전 세계의 공동대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단기, 중기, 장기 행동계획을 포함한 포괄적대응방안(Comprehensive Framework for Action, CFA)을 도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긴급식량지원 확대, 학교 급식프로그램, 영유아 및 임산부 지원 확대
- 바이오에너지 이용확대와 식량가격 상승간 심층 관계 분석, 식량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기술 도입 투자 확대
- 농업분야 대출, 보험 제공, 종자·비료·농약 보급, 토지소유권 보호 등 개도국 식량생산성 증진
- 농촌지역의 시장접근성 제고 도모

세계식량계획(WFP)은 2008년도 식량사업 분야 예산을 45억 달러를 조정할 계획이며 이중 34억불이 확보되었다. 미국(12억 달러), 사우디(5억 달러), 캐나다(1.9억 달러), 일본(1.4억 달러), 영국(1.1억 달러) 등이 주요 지원국이며 우리나라는 2.2백만 달러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식량분야 긴급지원으로 7억5천만 달러를 국제사회에 요청한 결과, 목표 조성액을 초과하여 10억 6천만 달러가 모금되었다.

UN 식량농업기구(FAO)는 “기후변화와 바이오에너지 도전”을 주제로 “식량안보 정상 회의”(로마, '08.9.3)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글로벌 식량위기로 기아와 빈곤에 시달리는 저개발국에 대해 긴급구호를 비롯한 단기 대응책을 실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비록 미국, 브라질 등 바이오연료 최대생산국들이 “바이오연료”와 식량위기를 연관시키는 데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하였으나 전 세계가 당면한 식량위기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을 뿐 아니라, 글로벌 식량위기 문제의 개선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IV. KOICA 지원현황

무상원조를 전담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1991년부터 2007년까지 11억7천만 달러를 지원해왔으며 이중 대개도국 식량위기 분야 지원은 단기적인 긴급식량원조외에도 개도국 빈곤인구의 75%가 거주하는 농촌지역사회의 농수산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 종합개발을 통해 소득증대와 농경지활성화를 통한 식량증산 도모를 지원해왔다.

1. 식량위기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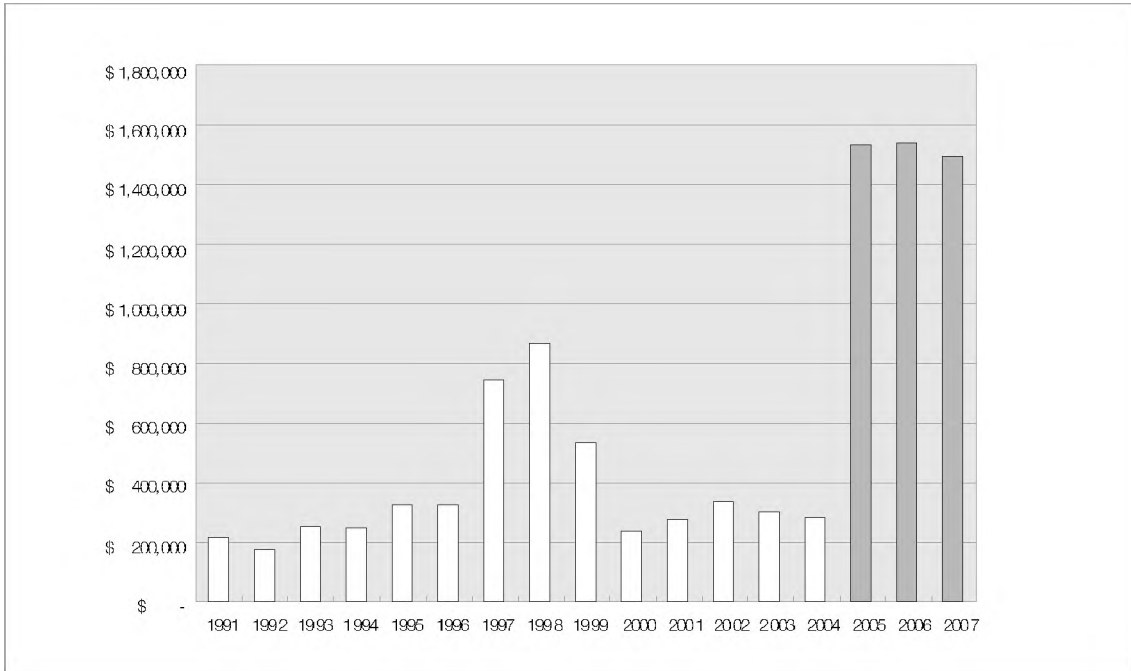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대개도국에 식량원조분야 지원실적은 69개국 3개 기구 963만 달러이다. 연도별로는 2005년도에 2004년 대비 지원규모가 7배 증가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연간 150만 달러 수준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52%, 아프리카 22%, 국제기구 15% 등이다.

2. 농수산업 생산성 향상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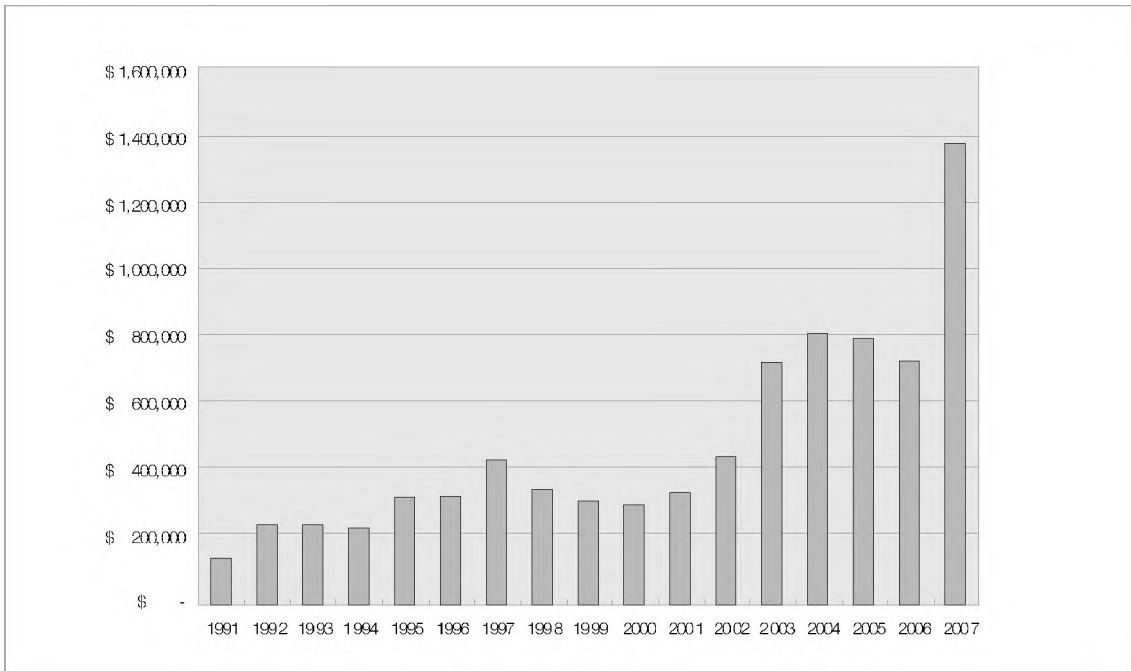
단기적인 식량지원 외에도 식량증산계획, 농업기계화, 영농 기술 보급을 통한 농수산업 향상 분야 KOICA의 대개도국 지원실적은 1991년부터 2007년까지 133개국 9기구 8,00만 달러 규모이다.

특히 2007년도 지원실적이 2006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금년도 농어촌분야 지원사업중 64%를 농수산업 생산성 향상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식량위기가 심각한 아시아(67%)와 아

〈그림 2〉 식량원조분야 연도별 지원실적



〈그림 3〉 농수산업 생산성 향상분야 연도별 지원실적



프리카(13%)에 집중 지원되고 있다.

지원형태별로는 식량증산 및 농어촌지역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개발조사사업이 40%, 미곡 생산기술, 농업개발정책, 관개개발과 농업용수 관리 분야 봉사단·전문가 파견 및 국내초청연수분야 지원이 50%이며 물자 및 현금 지원은 10% 비중이다.

주요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 사업으로는 “ESCAP 농촌 새마을 운동 시범사업 1,2차(02-08/187만 달러)”, “필리핀 미곡처리장 지원사업(05-06/230만 달러)”, “세네갈 다가나 농업생산성 개선사업(07-09/150만 달러)”, “캄보디아 수자원개발 종합계획 수립사업(06-08/149만 달러)” 등이 있다. 물자 및 현금지원으로는 WFP 스와질랜드 아동 영양보급 지원, 아프리카통일기구(OAU : Organization for African Unity) 기생잡초 저항성 옥수수 보급사업, OAU 식량증산사업 지원 등이 있다.

V. KOICA 사업 추진 방안

1. 지원필요성

2007년도 우리나라의 내개도국 원조규모는 국민총소득(GNI)의 0.07%이다. 이는 OECD 가입국가중 개발원조위원회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속해있는 22개 국가의 평균치 0.26%

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이중에서도 우리의 식량원조 분야⁶⁾ 지원실적은 앞장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KOICA 양자 ODA 지원액(11억8천만 달러)중 6.8%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우리나라도 2007년 기준으로 콩을 포함하여 세계 5위의 식량수입대국이고 식량자급률 또한 26.5%로서 식량의 70%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식량 의존국가이다. 따라서 향후 글로벌 식량위기는 우리의 문제이기도한 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다 능동적으로 국제사회의 공동대처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2. 단기 및 중·장기 지원방안

가. 단기지원방안(다자지원)

단기적 지원방안으로는 WFP 등의 식량지원 분야 국제기구의 지원을 통한 다자지원 형태의 원조를 통해 지원의 효율성과 원조의 가시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정부는 제 63차 UN 총회 및 MDGs 고위급 회담 참석을 계기로 세계식량계획 WFP에 대한 2천4백만 달러를 지원하고 농업생산성 증대 분야 사업에 7천6백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향후 3년간 1억 달러 규모로 단기 식량원조 지원액을 천명할 계획이다. 이러한 다자지원 형태의 사업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식량부족 국가 간 공조체계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6)식량원조분야 직접지원외에 농수산업 생산성 향상분야 실적을 포함.

나. 중·장기 지원방안(양자지원)

또한, 우리의 주요 협력대상국 중 식량자급률 제고와 농수산업 생산성 향상을 최우선 개발과제로 추진 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중·장기적으로 식량자급달성을 위한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의 양자지원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식량증산이나 품종개량 사업은 최소 5년 이상의 투자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의 지원으로서 다국 소액 지원의 산발적인 현재의 지원방식으로는 사업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지원 효과가 높은 국가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식량지원 원조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 추진 시,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영역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원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관개개발, 지하수 개발 분야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개도국 식량부족 국가의 기본적인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규모 지원으로도 개도국 식량증산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기반시설 구축 및 지원 외에도 농수산업 기술을 현지주민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시설·물자·기술을 종합적으로 전수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의 자립능력을 제고하여 개도국의 기초 식량 확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개도국 농촌지도자 육성과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한 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선 계몽운동인 새마을 운동사업 추진 사례를 현지실정에 맞게 접목하여 추진 시 지원의 경제적 효율성과 원조 사업의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사업모델은 과거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40여년 만에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우리나라의 독특한 개발경험을 전수받고자 하는 개도국의 수요가 높은 분야이다. 올해 11월 4일 유엔본부에서 밀레니엄 프로미스(MP)와 KOICA 간에 한국형 밀레니엄밀리지 사업 양해각서(MOU)를 서명함에 따라 다자채널을 통해서도 우리나라의 개발경험 전수를 본격화하게 되었다.

3. 지원사업 모델(세네갈)

개도국 중 대표적인 농업국가인 세네갈에 현재 추진 중인 농업생산성 향상분야 지원 사업을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세네갈은 2007년 기준으로 GDP 중 농업의 비중은 16.7%이나 노동력 기준으로는 약 75%의 절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도국의 전형적인 농업 국가이다.

세네갈 정부는 2007년 1월 MDGs 달성을 위해 연평균 경제성장률 7%를 목표로 하는 성장가속화전략(Accelerated Growth Strategy/Stratégie de Croissance Accélérée, SCA)을 완료하였다. 동 개발계획에 따르면 세네갈은 ①농업 ②수산업 ③선유 ④관광 ⑤ICT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 부문의 민간부문 활성화를 통해 경제 성장 및 수출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세네갈정부의 개발계획에 부응하여 KOICA는

〈표 4〉 세네갈 주요 경제·사회 지표(2006년)

소득수준에 따른 국가분류		저중소득국(LDC)
인 구		11,9백만명
인구성장률		2,3%
UNDP 인간개발지수 · 56위(총 177국)	평균수명	56.5세
	성인문자 해독률(15세 이상)	41%
	1인당 국민총소득	USD 1,830 (PPP Int'l dollars)
유아사망률(1000명당)		60.9
GDP(명목기준)		USD 89억
GDP 성장률		3,3%
1인당 국민소득(GNI)		USD 750
연간 물가상승률		4,1%
인터넷 사용인구(인구 1,000명당)		46,3

※ 출처 :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7)/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

지난 17년간 60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이중 농업분야에 총지원액의 23%인 140만 달러를 집중 지원했다.

올해는 세네갈에 KOICA 해외사무소가 개설되면서 총 46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중 세네갈 정부의 주요 농업 정책인 GOANA⁷⁾에 부응하는 농수산업 생산성 향상분야 사업을 3건, 223만 달러 규모로 실시하고 있다. 대상사업은 “포도르 지역 관개개발(08-10/180만 달러)”, “다가나 지역 농업생산성 향상(07-10/150만 달러)”, “해수양식장 개발 타당성조사(08-09/160만 달러)” 사업이다.

또한, 올해 4월 KOICA 총재의 세네갈 방문 시 세네갈

대통령은 세네갈의 쌀소비량(80만 톤)중 80%를 수입에 의존중임을 설명하고 2015년까지 쌀자급 달성을 최대 현안과제로 추진 중인 바, 상기 GOANA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신규로 “그랑디그 텔렐 지역 관개사업(08-09/180만 달러)”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지난 8월에 실시한 동 사업 사전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업대상지인 그랑디그(1,700ha), 텔렐(800ha) 및 인접 지구(3,00ha)의 관개 배수시설을 개선하고 용·배수로 재배치를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대상지역의 미작생산량을 5배 증가하고 세네갈 전체 쌀 수입량을 4% 경감할 수 있는 우수 사업으로 검토되었다.

7) GOANA (농업개발전략: La Grande Offensive Agricole pour la Nourriture et l'Ancorance) : 2015년까지 15만-20만ha 관개사업을 실시하여 쌀자급율을 달성하며 농민소득 증대, 외환 절약 등으로 경제발전을 유도하는 정책.

상기 대세네갈 협력사업 추진의 경우와 같이, 수원국의 최우선 개발과제가 식량자급률 달성인 국가를 대상으로 “식량증산과 식량자급률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국별·프로그램 사업을 수행하여 중·장기적으로 수원국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Ⅵ. 맺음말

현재 식량위기 문제가 계속될 경우, 2015년까지 절대 빈곤 반감을 목표로 하는 국제사회의 '새천년개발목표(MDGs)'도 달성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를(Basic Human Needs) 해결하지 못하고는 개도국의 절대빈곤 완화를 도모하기 어렵다. 국제사회에서는 친빈곤층 성장정책분야에 있어(pro-poor growth) 빈곤층의 75%가 거주하는 농촌 분야에 대한 투자와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주요 식량부족국가인 바, 향후 식량위기에 취약한 개도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식량 부족국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으로 앞장섬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식량 부족국가에게 유리한 정책과 제도, 지원을 이끌어내고 지구촌 식량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 문헌]

1. 국내문헌

한국쌀연구회 (2008), 세계식량위기와 우리 쌀 산업.

2. 외국문헌

MA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of Senegal (2008), GOANA - Programme Agricole 2008 ~ 2009.

OECD (2006), DAC Guidelines and Reference Series A DAC Reference Document : Promoting Pro-Poor Growth Agriculture.

OECD (2008), Rising Food Prices - Causes and Consequences.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06 Revision」.

USDA (2008),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orld Bank (2007), World Development Indicators(Human Development Report